



남원 도동동 지사협, 사랑 듬뿍 찬찬 밑반찬 나눔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서덕교)는 11일 1일1가구 소통행정을 통한 가정방문에서 반찬을 직접 하기 곤란한 부자 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 17가구를 발굴해 안부를 살피고 사랑 듬뿍 찬찬(饌贊) 밑반찬 나눔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 협약을 통해 매월 정기기부자 130명이 125만원의 후원금과 착한기게 16개소 48만원을 지정 기탁금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반찬 후원을 받은 고령의 어르신 한 분은 "날씨도 덥고 습해서 입맛이 없었는데, 정성껏 마련한 반찬을 받으니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며 반박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살뜰히 보살피는데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민간과 공공의 소통·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온정 넘치고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해 기뻐”

전주시 서신신협, 서신동 새마을부녀회와 독거노인 삼계탕 나눔 행사 열어

서신신협(이사장 한병훈)은 11일 오전 서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자)와 함께 관내인 서신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더운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정겨운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다. 서신동 부녀회에서는 전날 미리 삼계탕 만드는데 들어가는 각종 부자재와 재료를 준비해 조리 및 포장했고 서신신협 직원들은 포장된 삼계탕을 관내 취약계층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를 짜서 배달하는 수고로운 일을 구슬땀을 흘려가며 진행했다. 각종 보양재료를 넣어 끓인 삼계탕 약 70인분을 맛있게 준비해 무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신동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했다. 한편, 서신동 부녀회는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반찬 나눔 봉사, 사랑의 김장담그기 나눔 행사와 단년 떡국 나눔 행사, 관내 체육행사시 점심 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서신동 김은성 동장은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관내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서신신협과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서신신협 한병훈 이사장은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좋았고 서신신협은 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여 봉사하는 서신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이영자 회장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르신이 없는데 무더운 여름철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만호기자



서신신협 한병훈 이사장은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관내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좋았고 서신신협은 늘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여 봉사하는 서신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신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이영자 회장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어르신이 없는데 무더운 여름철에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만호기자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남원시 기획실은 민선식 남원시 부시장이 주요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일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한파우 아트밸리,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지리산 힐러타운, △공공산후조리원, △남원교도소, △인재학당 등 민선8기 공약사업 및 현안 사업장 15개소를 방문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의 관광 동선 연결을 위한 요천 및 한파우 아트밸리 등 대형 사업장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살피며 정밀한 현장 조사와 안전 조치도 재차 당부하였다. 민선식 부시장은 "모든 정책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달라"며 "수시로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 광활면 지사협, 사랑·영양 듬뿍 삼계탕 전달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11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최은미) 위원 등 20여명이 삼계탕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된 '사랑기둥 영양듬뿍 초복맛이 삼계탕'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더위를 잊게 해 줄 따뜻한 위로와 건강한 영양이 가득한 삼계탕과 함께 밑반찬 과일도 함께 전달했다. 앞서 지난 10일, 광활면청년회(회장 임동숙)는 초복을 맞아 각 마을 어르신들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이장협의회에 기탁한 바 있다. 광활면 내 사회단체들은 이웃사랑 나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살기 좋은 면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힘쓰고 있다. 최은미 민간위원장은 "이번 나눔은 무더운 여름철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이웃과의 소통과 따뜻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수년 광활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들에게 사랑과 영양을 담은 삼계탕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께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휴비스 전주공장, 지역내 학생 200명에 건강한 여름방학 식사지원

화학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백승덕)이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방학을 위한 '희망키움 식사지원'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 전달식은 전주시에 위치한 팔복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팔복초등학교를 비롯한 사업장 인근 초·중·고등학교와 반월초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전달해 지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휴비스는 사회공헌활동인 '희망키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학 중 끼니를 거르는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식사지원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어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과 연계된 식당의 식사권을 지급하거나, 쌀이나 부식 등 식자재를 집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휴비스 백승덕 전주공장장은 "급식이 없는 방학 기간 중



식사가 걱정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휴비스는 결식아동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사에서 앞장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 주생면, 찾아가는 마을간담회 마무리

남원시 주생면(면장 이정찬)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18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들과의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94회 춘향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에 감사하고, 시책 안내와 폭염 및 태풍·호우 대비 행동요령 및 제13회 주생면민의 날 행사 등을 안내하였다. 특히, 면 현안 사업인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제천 회전교차로 개선, IX드론활용센터 구축, 금풍 위험도로 구조개선, 대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주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제천1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광락소하천 수해복구, 풍촌 재해위험 개선 등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건의한 30여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에 건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찬 면장은 "주민들과 함께 주생면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며 해결책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명륜대학원 특강

심덕섭 고창군수가 11일 오전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에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도시 고창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명륜대학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에서 심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슬로건 아래 군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민선 8기 고창군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명륜대학원은 2021년 개관한 고창유교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는 대표 인문 프로그램이다.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동양사상과 유교경전 등의 이해를 통한 인문학과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 군수는 올해 중점 국정목표인 '군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사업'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창수박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비롯해, 김치원료 가공 산업 집중육성 정책과 청년스마트팜 사업 등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명륜대학원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으며 고창군의 밝고 활기찬 미래가 그려졌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의 사랑과 관심이 지난 2년을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특별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관리자 및 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강취약계층인 아동·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조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인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률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식중독의 이해 및 발생 현황 △계절별 식중독 발생원인 및 예방법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위생관리, △조리과정별 위생관리, △시설·환경 위생관리 등에 관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를 병행해 급식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태권도원운영관리, 복지기관에 물품 후원·봉사활동

태권도원운영관리(주)대표이사 서필환은 11일 오전 11시, 지역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무주군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관)을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태권도원운영관리(주) 대표이사 등 8명은 복지관을 방문해 2백만원 상당의 여름철 보양식과 물품을 후원하여, 400여명에 대한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봉사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나눔정신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2022년 11월부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날 서필환 대표이사는 "지역 주민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교육지원청, '꿈을 찾는 아카데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에서는 지난 10일 관내 학생 학부모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꿈을 찾는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이날 강사는 이정모(前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으로 △ 과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 △ 과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과학 공부 하는 방법, △ 진로를 선택할 때 유의할 점, △ 인공지능 발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 과학문화해, △ 과학에듀테인먼트 등에 대해 재미있게 강의해 주었다. 이정모 강사는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의 창작자로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문학을 많이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쓰기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1~12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2024년도 김제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농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회원 간 정보공유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 첫날에는 농업인구 감소화와 고령화에 대응하며 농업의 미래 변화에 대비책 마련을 위해 나주 미래농업센터를 견학하고 농업인들을 위한 유용한 농업 법률을 배우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첨단 기술을 통해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농업의 수익을 증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의 농업·농촌 분야에 적용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을 함께 할 예정이다. 박금남 소장은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농업인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농업인학습단체에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김제 농업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김산동 지사협, 사랑담은 여름김치 나눔 펼쳐

김제시 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기삼)가 11일 김치가 필요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1인 청장년 가구 40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담은 여름 김치 나눔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신선한 재료로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만든 김치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각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며 집안을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 상담을 병행했다. 이번 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우울증 및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삼 민간위원장은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